‘육상 명가’ 광주시청, 적수가 없다

전국체전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남자 400m 계주 대회신기록
세단뛰기 서예지·사격 장대규 1위…허들 정혜림 9연패 달성은 실패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육상 명가’ 광주시청이 1600m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고승환·한정미·강다슬·모일환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1600m 혼성 계주에서 3분25초34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22년 열린 104회 대회에서 충북(박미나·황현우·서지현·고승환)이 세웠던 3분26초56이다.

광주시청은 이날 2위 경기도(3분26초47), 3위 충청북도(3분27초11)를 제치며 완벽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이날 금메달로 고승환은 대회 3관왕(200m·400m계주·1600m혼성계주), 모일환은 2관왕(400m·1600m혼성계주)에 올랐다.

앞서 광주시청 김국영·김태효·고승환·이재성은 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도 가장 빠른 38초86에 질주를 끝내면서 대회신기록 작성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전기록은 지난해 대회에서 광주시청 김태효,김국영,강의빈,고승환이 세운 39초27다.

첫 주자 김태효에 이어 김국영이 바통을 받아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었다. 세 번째 주자 이재성이 속도를 높여 격차를 벌렸고 마지막 주자 고승환이 독주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열린 여자 100m 허들에 나선 광주시청 정혜림(37)은 아쉽게 대회 9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허들여제’ 정혜림은 결승에서 13초48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1600m혼성계주에서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은 선수들이 노력해온 결과다. 400m계주에 이어 좋은 성과가 나와 기쁘다”며 “정혜림은 아쉽게 9연패에 실패했지만 부상을 이겨내고 얻은 결과라 더욱 값지다”고 전했다.

광주시청은 16일 1600m계주 경기에서 다시 한번 금 수확에 나선다.

한편, 광주·전남 선수단은 육상 필드, 레슬링, 사격 등에서도 금빛 활약을 이어갔다.

이날 육상 세단뛰기에서는 서예지(광양하이텍고)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예지는 세단뛰기 여고부 경기에서 11.90m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사격에서는 장대규(광주시체육회)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센타화이어권총 남일부 경기에서 584.0점을 획득하며 체전 2연패에 성공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이 15일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1600m 혼성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갑수 시체육회장, 고승환, 한정미, 심재용 감독, 강다슬, 모일환. 〈광주시체육회 제공〉

레슬링에서도 금빛 활약이 이어졌다.

전남 소속 강경민(한국체대)이 함안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대부 그레꼬로만형60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강경민은 이건섭(경남)과 펼친 결승전에서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투혼 끝에 판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서영(광주남구청)은 레슬링 자유형53kg급 결승에서 강윤지(인천)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장대규 “은퇴 기로에 금메달로 다시 도전할 용기 얻어”

전국체전 센타화이어권총 2연패

사격 ‘베테랑’ 장대규(광주시체육회·사진)는 체전 금메달로 ‘계속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장대규는 15일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센타화이어권총 남일부 경기에서 584.0점으로 1위에 오르며 체전 2연패를 기록했다.

광주시체육회 여자일반부 감독이기도 한 그는 만 50세의 나이를 두 달 앞둔 1975년생이다.

그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총을 잡은 뒤, 35년이라는 긴 시간 사격 인생을 걸어왔다.

장대규는 “선수들 지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훈련에는 시간을 거의 못 썼다. 총기 종목은 매일 훈련을 해도 어려운 경기다. 11개월간 훈련 공백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성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노안이 찾아오면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던 그는 이번 금메달로 다시 사격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됐다.

“사격 선수에게 조준선을 보는 눈은 생명과도 같다. 그게 안 보이니까 경기를 할 때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경기를 할수밖에 없었다. 돋보기를 오래 쓰면 안압이 올라가고 눈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난다”고 어려움을 전한 그는 “나이도 있는데 그렇다고 은퇴를 하게 되면 내 빈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 올림픽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쉽진 않겠지만 다시한번 힘을 내보려 한다”고 밝혔다.

금메달을 목에 건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경기 직후 “생일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전한 그는 “아침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 덕분에 더욱 힘이 났다”고 웃었다.

이어 “특히 우리 사격을 이끌어주시는 김승동 사격협회 부회장님이 고생이 많으셨다. 그분 덕분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자들과 후배들에게는 ‘감독 장대규’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도 남겼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 체력을 강조하며 “부상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기초 체력을 다져 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에 좋은 사격 팀이 생겨서 후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더 큰 무대에서 더 멋진 성과를 내길 바란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오는 18~20일 완도와 해남 소재의 종목별 경기장에서 ‘제3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린다. 지난 2023년 순천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회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스포츠로 하나되는 전남…완도서 생활체육 대축전

18~20일 2만1000여명 참가

전남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치유의 섬’ 완도에서 뭉친다.

오는 18~20일 완도와 해남 소재의 종목별 경기장에서 ‘제3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린다. 이번 대축전에는 전남 22개 시·군 2만1000여명이 참가해 검도·게이트볼·궁도·그라운드골프·농구·배구·배드민턴·볼링·산악·소프트테니스·수영·씨름·야구·육상·족구·체조·축구·탁구·태권도·테니스·합기도·바둑 등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파크골프, 민속경기인 줄다리기 등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낸다.

시군별 참가인원은 진도가 372명으로 가장 많고, 영암 370명, 해남 344명, 완도 342명, 고흥 339명, 화순 330명, 광양 328명, 여수 327명, 무안 310명 등이다.

기록 경기 종목별 1~3위, 토너먼트 경기 1·2위와 공동 3위에게 트로피가 수여된다.

개·폐회식은 18일 오후 5시 30분 완도공설운동장과 20일 오후 3시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 대규모 체육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어울림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 가수 박지현·임창정·김연자·김경호·비비지 등이 어울림콘서트에 참석해 무대를 빛내고 드론라이트쇼와 불꽃놀이가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대축전 기간 청해진스포츠센터 인근에서는 종합안내소·상황실 등 중앙 운영부스와 소방안전체험·인생네컷 사진관·푸드트럭 등 체험 및 홍보부스, 농·수산물 판매 부스가 설치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지는 폐회식에서는 종합시상과 대회기 전달, 경품추첨 등이 예정돼 있다.

경기 일정과 대진표 등 이번 대축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6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25년 제37회 대회는 영광에서 치러질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

‘파리 金’ 양지인, 국제사격연맹 올해의 여자 선수

한국선수 4번째 수상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지인(21·한국체대)이 국제사격연맹(ISSF) 올해의 선수에 올랐다.

ISSF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양지인과 류위쿤(중국)을 각각 올해의 여자,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지인의 수상은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올린 ISSF 월드컵 파이널 개회식에서 발표됐다.

올해의 선수는 ISSF 부문별 위원회와 코치진, 취재진의 투표로 선정된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권총 금메달리스트 김장미(2012년), ‘사격 황제’ 진종오(2008, 2014년) 이후 네 번째 수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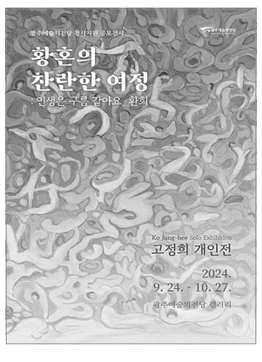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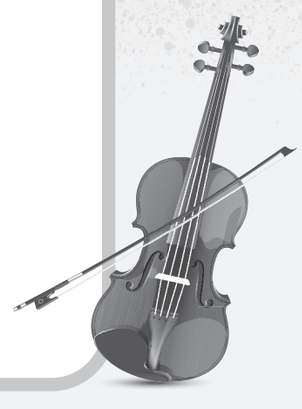
양지인은 김예지(임실군청)를 포함한 총 6명의 후보 가운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월드컵 5개 대회 가운데 4번 결승전에 진출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양지인과 함께 상을 받은 류위쿤은 파리 남자 50m 소총3자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허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